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1 하반기호

관계적 실천으로서 가족과 커뮤니티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1 하반기호

관계적 실천으로서 가족과 커뮤니티

CONTENTS

<아젠다 기획>

가족적인 것의 개념: 연결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류도향)	04
근대이행기 어느 위정척사지식인의 가족 담론(박미선)	09
가족상황차별인식으로 보는 지역의 보수성 탐색: 지역권역별 세대와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추주희)	14

<연구동향>

인포그래픽 - 가족유형별 가족실천 상황	23
가구유형별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탐색(오영은)	24

<정책보고서 리뷰>

한국노동연구원(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34
여성정책연구원(2021)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II)	39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전화 062-530-3234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아젠다 기획

- 가족적인 것의 개념: 연결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류도향)
- 근대이행기 어느 위정척사지식인의 가족 담론(박미선)
- 가족상황차별인식으로 보는 지역의 보수성 탐색:
지역권역별 세대와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추주희)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함께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적인 것의 개념: 연결의 정치학을 위한 시론^{1)*}

류도향(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 들어가며: 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

이 글은 우리 시대 새로운 가족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적 개념으로 ‘가족적인 것(The familial)’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¹⁾

가족적인 것은 가족(The Family)이라는 명사와 대비해서 가족의 수행적·동사적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가족적인 것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한, 때론 가족보다 더 가족적인 여러 관계적 실천들을 지시한다. 이 개념은 가족의 수행적·동사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가족실천family practice’ 또는 ‘가족시연family display’ 개념과 유사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족 수행의 비판적 규범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가족적인 것이라는 개념은 이성애 규범과 성별분업, 신자유주의 담론 등 지배적인 주류문화 안팎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가족들의 가치 및 의미속성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기 위한 기획이라 할 수 있다.

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정치police/가정oikos’의 개념 구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름 붙이는 관계는 유기체로서 상호의존의 복수적 행위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즉 너와 내가 서로를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구성된 집단적 주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기체적 삶의 조건 속에서 신체를 매개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함께-하기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구상을 바탕으로 이 글은 가족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국가주의·자본주의 담론과 젠더 및 세대 불평등에 저항할 수 있는 비판적 규범을 설정한다. (2절) 다음으로 실제 삶의 맥락에서 가족적인 것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복합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을 밀접한intimate 거리, 개인적personal 거리, 사회적social 거리가 멀고 가깝게 조정되면서 만들어지는 공간적 실천으로 서술한다. (3절)

* 이 글은 『가족과 문화』 2021년 12월 33집 4호에 게재됨.

1)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사물화된 명사적 가족과 구분되는 가족적인 것의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류도향(2020), 「가족적인 것의 확장: 유사성과 차이성」,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2. 가족적인 것의 비판적 규범

버틀러(Judith Butler)는 ‘정치police/가정oikos’의 이분법적 개념들 안에서 오랫동안 부자유 의 장소로 치부된 가정oikos를 신체를 매개로 한 연대의 장소로 새롭게 재해석한다. 즉 가정이라는 비정치적인 사적 영역에서 인간은 필요, 충동, 생활고, 질병, 죽음의 운명 등 “우리의 지속성과 번성을 보장하는 상호의존성이라는 [생명체의] 조건²⁾” 때문에 함께-하기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은폐하는 가족담론은 이런 함께-하기의 실천을 혈연과 제도 등 특정한 정상성 규범으로 획일화시키지만, 가족적인 것은 인간/비인간, 남/녀, 성인/비성인, 장애/비장애의 구별과 경계를 넘어서 신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 사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관계성을 지시한다.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기체적 삶의 조건 속에서 지속가능한 상호의존을 증진하는 수행성을 우리는 어떤 반근본주의적 토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불변하는 본성이거나 자연적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생태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 환경 안에서 살아있는 신체들을 매개하는 지속적인 상호의존관계인 것이다.

가족적인 것을 수행하는 것은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 인맥을 쌓는 목표지향적 행위나 일시적 만남을 추구하는 취향공동체에서 발견되는 피상적인 상호작용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신체를 매개로 한 수행은 자유와 능동성, 우월함과 능력과 같은 주체의 범주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부자유와 수용성, 취약함과 감응처럼 객체를 우위에 놓는 태도로부터 비롯된 행위이기 때문이다.³⁾

객체 우위의 태도는 “완전히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세계에 열려 있는 개방성의 기능⁴⁾”이라 할 수 있다. 신체를 지닌 존재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고 움직이기 위해,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타자에게 자신을 개방한다. 이는 타인의 영향 아래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며, 우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에 반응하는 노고를 견디는 것이다.

이런 위험과 노고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 이익이나 안위를 지키려는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다른 신체들과 상호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이의 공간 또는 연대의 공간에 대한 성찰적 자각과 그로부터 비롯된 함께하려는 실천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처럼 인식과 의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수행되는 공간적 실천을 가족적인 것의 최소한의 규범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족적인 것의 벡터장: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가족적인 것의 비판적 규범을 설정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에서 가족적인 것의 잠재된 가능성을 말할 수 있으려면, 가족이라는 공간이 구성되고 구조화되는 조건을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분석틀이 요구된다.

- 2) 주디스 버틀러(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웅산·양효실 옮김, 창비, 67쪽.
- 3) 주디스 버틀러(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93쪽 참조.
- 4) 주디스 버틀러(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215쪽 참조.

공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은 가족 내/외부의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현상하는 벡터장과 같다. 즉 가족적인 것은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자기 관계(주체로서 나와 객체로서 나, 이성과 감정, 의식과 무의식 등의 관계), 그들의 신체 속에 침전된 역사적 관계,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등 다원발생적이고 다형적인 관계들의 다발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며 구성된다. 우리는 이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나와 너의 상호의존적 상태를 물리적·상징적으로 거리조정하면서 가족적인 것을 실천한다.

이러하면 대화가 단절된 부부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정도의 거리에서만 서로를 지각한다. 두 사람은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의 조건에 불가피하게 처해 있지만 서로 눈을 맞추지 않고 상대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을 만큼 떨어져서 아이를 통해 간접적인 의사표현을 한다. 만약 부부와 부모자식 사이에 공간적 거리를 조정한다면 이들이 맺는 관계의 질도 달라질 것이다. 즉 우리가 객체를 우위에 놓는 미메시스(유사성의 태도)를 통해 타자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관계 자체’를 준거점으로 삼아 상호의존적인 삶의 조건을 조정해나간다면, 정상가족의 규범에 갇히지 않는 가족적인 관계망을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화인류학자 홀(Edward T. Hall)은 우리에게 가족의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유기체는 자신만의 영토를 구축하는 행동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① 밀접한 거리, ② 개인적 거리, ③ 사회적 거리, ④ 공적 거리, 네 가지 거리감각을 조정함으로써 최적의 관계 유형들을 파생시킨다.⁵⁾

첫째, 밀접한 거리는 보통 18인치(45cm) 이내로 몸통이나 손발이 닿을 수 있는 거리다. 손을 뻗으면 신체 어느 부위든지 쉽게 접촉이 가능하며 또한 자극할 수 있다. 밀접한 거리에서는 상대의 존재가 확연해지고 체온, 숨소리와 냄새 등 크게 증가하는 감각 입력 때문에 압도될 수 있다. 독특한 체취, 푸념이나 신음소리처럼 고유하고 개별적인 특성이 전달된다. 이런 거리에서는 “신체적 접촉이나 뒤엉킴의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맞붙어 싸우고,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등의 행위가 일어”난다.⁶⁾

둘째, 개인적 거리는 개체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리로 4피트(1m 20cm) 이내이다. 개인적 거리를 취할 때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긴밀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개인적 거리의 중요한 기능은 공격성을 완화시키고 규제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거리는 자기가 속한 무리나 집단과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리다. 12피트(3m 60cm) 이내에서 일어나는 사교적 모임이나 회사생활에서 업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에 홀은 사회적 거리를 심리적인 거리라고 말한다. 인간의 사회적 거리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장되어 있어서 국제적 거리를 둔 집단의 행동까지 통합할 수 있을 만큼 멀어질 수 있다.

넷째, 공적 거리는 유명인이나 고위직 공무원처럼 공적으로 중요한 인물 주변에 형성된 거리로 25피트(7.62m) 이상 떨어진다. 공식석상에서 집단을 향해 큰 목소리로 말 할

5) 홀, 에드워드(2017), 『숨겨진 차원』, 최효선 옮김, 한길사.

6) 홀, 에드워드(2017), 『숨겨진 차원』, 179쪽.

때는 목소리의 미묘한 음조가 상실되면서 과장된다. 이런 거리에서는 개인의 세밀한 특징들이 흐려지고 인간미나 취향 등은 식별불가능해진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즉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가족적인 것의 수행성과 연관된 공간유형들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은 공적인 거리와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친밀한 관계 영토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유형들은 실제 생활에서 파편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되거나 교차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단축, 압축되거나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말하자면 가족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밀접한 사이라는 단일한 표상을 통해 평면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가 멀고 가깝게 조정되면서 만들어지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수행의 공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가족은 가족구성원들의 밀착된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개인적 거리를 인정해주는 유연한 관계이기도 하다. 나아가 가족이라는 공간은 가족구성원들의 생활공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가족을 둘러싼 사람들의 멀고 가까운 상호의존성 때문에 축소되거나 확장된 관계망으로 존재한다. 가족의 경계는 마을이나 지역 단위 또는 국가, 전지구에 이르기까지 상호의존성이 지각되고 경험되는 만큼 넓어질 수 있다. 이는 마치 유체의 흐름이나 중력장에서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장처럼 여러 상이한 수행의 계기들이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어지럽고 모호하게 유동하는 과정으로 표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공간에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은, 가족이 가족 외부에 있는 유기체의 생태적 환경, 개인화의 정치경제적·역사적 조건, 사회적 네트워크와 필연적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 맥락에 따라 물질적·상징적으로 안전한 삶의 장소를 만들어가는 일은, 일반적인 사회 규범이나 위계적 관계 형식을 따라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안정하고 상처받기 쉬운 유기체적 삶의 조건을 자각하고, 가족과 이웃, 마을과 사회, 생태환경과 지구를 보다 안전하게 재구성하고 연결하는 개인들의 공간적 실천을 통해 아래로부터 수행될 수 있다.

5. 나가며: 가족을 확장하는 연결의 정치학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가족적 관계들은 어떤 동물의 계처럼 작동한다. 이는 가족을 유동하는 벡터장 속에서 하나의 위치로 보는 위상학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네트워크적 위상학에 초점을 둔다면, 가족은 공동체의 내적 동질성보다는 접촉과 반응의 관계망을 통해 형성되는 다공적 패턴에 집중하며 영역적 개방성을 지향하게 된다. 가족을 유일한 삶의 안식처로 여기던 인식을 확장하는 관계적 실천을 21세기 친밀영역의 구조변동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정치학의 과제로 규정해볼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족, 친구, 이웃 주민, 동료들과 함께 밀접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상호조정하는 관계적 실천을 수행하면서, 아래로부터 사회구조를 변혁하는 일상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홀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거리를 취하느냐는 “교류 상황, 말하자면 상호작용하는 개별자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⁷⁾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상황과 맥락에 맞는 적절한 거리를 취하는 것은 각각의 거리와 연관된 활동, 관계, 감정 등을 인지하는 공간적 지각능력과 연관되어 있다.⁸⁾ 우리가 이 지각능력을 새롭게 연습하고 자기관계, 타자관계, 사회적·역사적 관계의 사물화된 형식(갈등과 불통의 형식)들을 변경한다면, 가족 내/외부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은폐하는 가족재현의 질서와 부호들을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동시에 집합적인 주체-되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는 사물, 사람, 사건이 자본과 국가의 힘에 의해 연결되는 주류 문화에 맞서 가족의 의미를 변경하는 새로운 관계성을 계발하면서, 나와 너, 남성과 여성, 청년과 노인, 부자와 빈자, 가족과 비가족의 이분법적 갈등 사이에 잠재된 이질적인 거리감각과 공간지각들을 발굴하고 서사화하는 작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인문담론적 실천을 통해 사물, 사람, 사건의 새로운 연결을 생산하는 비판적 정치학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홀, 에드워드 『숨겨진 차원』, 190쪽.

8) 홀, 에드워드 『숨겨진 차원』, 191쪽 참조.

참고문헌

- 류도향(2020), 「가족적인 것의 확장: 유사성과 차이성」,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1권 제1호.
- 버틀러, 주디스(2020),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집회의 수행성 이론을 위한 노트』, 김응산·양효실 옮김, 창비.
- 홀, 에드워드 (2017), 『숨겨진 차원』, 최효선 옮김, 한길.

근대이행기 어느 위정척사지식인의 가족 담론

박미선(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9세기 중엽, 서세동점의 상황 속에서 조선은 농업경제에 기반 한 오랜 통치체계가 동요되기 시작하여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국제사회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동안 조선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질서, 즉 발달된 중화문명과 여기에 미치지 못한 오랑캐로 구별한 중화주의에 편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1860년 중국이 서양에 굴복하여 수도 북경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조선 내에서도 민란이 끊이지 않는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노정되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중첩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위정척사파, 개화파, 동학교도 등은 현실 타개를 위한 사상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천으로서의 운동을 진행해나갔다. 화서 이항로(李恒老)를 비조로 하는 화서학과(華西學派)는 그 중 위정척사사상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학파였으며,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教, 1832~1893)는 화서학파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대표적인 위정척사지식인이었다. 본 글에서는 19세기 근대이행기의 대표적인 위정척사지식인이었던 유중교의 저술을 통해 그의 가족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중교의 가족 관련 저술

유중교의 문집인 『성재집』 권45에는 집안 및 종족과 관련된 「유씨종법」, 「유씨가전」과 일상에서 부모를 섬기는 의절을 기록한 「사친삼의」 등이 수록되어 있다. 1870년 39세에 「사친삼의」를 저술하였고, 그 후 1883년 52세에 「유씨종법」을 지어서 집안과 문중 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절을 실천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1887년 56세에는 일가(一家)에서부터 종족(宗族)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규범을 담은 「유씨가전」을 저술하였다.

특히 「유씨가전」에는 앞서 저술한 「유씨종법」, 「사친삼의」 등의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그렇지만 별도의 서(序)나 범례가 없어서 그 편찬 배경이나 항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유중교가 집안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로 '정윤리(正倫理)'를 강조한 것은 분명했다.¹⁾ 「유씨가전」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항목으로

1) 『省齋集』 권45, 「柳氏家典·御家」 “大凡御家之道, 正倫理篤恩義, 是第一大典. 爲家長者, 宜以此爲職事, 蚤夜惕念之, 正倫理說, 畧具在首章.”

정윤리를 정리하였다.

정윤리(正倫理) 다음 항목은 봉선(奉先), 사친(事親), 어가(御家), 거향(居鄉)이었다. 유증교는 윤리를 바르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선조의 제사와 어머니 섬기기를 중시하였다.²⁾ 따라서 봉선(奉先), 사친(事親)을 그 다음 항목으로 차례로 기술 하였다. 유증교는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 원리, 대상, 방법 등을 기술하고 집안 구성원들의 활동 및 금지조항 등을 차례로 배치하여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증교는 가정에서의 예법을 지역사회로까지 넓혀서 ‘거향’을 다섯 번째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비록 마지막 장으로 구상하였던 ‘처세’ 부분은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정윤리’에서부터 ‘거향’까지의 내용은 가족에서부터 지역공동체까지의 윤리규범, 관계, 역할 등에 대한 유증교의 가족 담론을 잘 정리한 것이었다.

2. 서양 가족 윤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증교의 저술에 담긴 그의 가족 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그가 서양 가족 윤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다.

유증교는 어린 시절부터 서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가풍과 학풍 속에서 성장하였다. 이는 가풍과 학풍에서 발현된 것이었다. 1860년 북경의 침략,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훨씬 전이었던 1849년(헌종 15)에 이미 부친과 스승 이항로는 서양세력의 침략성에 대해서 인지하며 다양한 논의를 하였는데, 유증교는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³⁾ 뿐만 아니라 유증교는 천주교와 서양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 방식을 구축하였다. 유증교는 「옥계산록(玉溪散錄)」이라는 글을 지어 천주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는 서양의 사상에는 중화 문명의 핵심인 윤리와 명분의 질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부, 부모, 조상에 대한 천주교의 서술은 중화문명과 거리가 멀다고 여겼다. 서양의 사상에서는 조상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자신을 낳아준 사람은 육신(肉身)의 부모일 뿐 천주(天主)야말로 영혼의 부모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존재였다.⁴⁾ 뿐만 아니라 천주교는 관계에 있어서 명분에 따른 질서가 전혀 없어서 임금, 아버지, 형, 어른 등 나이의 고하를 막론하고 ‘너’라고 불러 윤리 질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⁵⁾

이러한 서양에 대한 유증교의 인식은 1882년 설악산 은거이후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서양을 ‘금수(禽獸)’로 규정하였다. 천주교사상은 중화문명의 핵심 관계인 군신, 부부, 부자의 윤리인 삼강이 없었다. 인륜에 있어서 삼강오상은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이며, 인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하나라도 무너지면 모든 조목이 무너지는 핵심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 구조 속에서 서양은 금수에 불과한 것이었다.⁶⁾

- 2) 『省齋集』 권45, 「柳氏家典·御家」 “正倫理之道, 以奉先事親爲大本. 說亦具上章.”
- 3) 『省齋集』 권43, 「柯下散筆·先考洛陽府君遺事草」 “蓋於此時, 賊情未及顯露, 廟堂恬然不以爲意. 山林高世之見, 亦且爲不足憂之論. 故二公之言, 人或不信. 其後不幾年, 而燕都陷敗, 生民爲魚肉. 又不幾年, 而吾東邪教充滿中外, 至有丙寅江都之役, 然後, 始服前之不苟然也.”
- 4) 『省齋集』 권35, 「講說雜稿·玉溪散錄」, “彼徒以其所生者爲肉身父母, 以天主者爲靈魂父母. 愛敬尊奉, 在彼而不在此.”
- 5) 『省齋集』 권35, 「講說雜稿·玉溪散錄」 “斥邪論曰, 所謂主教輩濫稱天職, 不問人年齒高下, 使之以奴隸. 又云, 身爲神父, 待其父兄以臣子之禮.”
- 6) 『省齋集』 권35, 「講說雜稿·三綱五常說」 “古之爲夷者, 處人與禽獸之間. 今之爲夷者, 禽獸而已矣.”

유증교는 금수와 같은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정(性情)을 보존하고 기르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서양의 음란함과 사악함으로 온 나라가 혼란해지고, 존망이 달린 위급한 위기의 시기에,⁷⁾ 맹자가 말한 항상된 도의 회복을 강조하였다.⁸⁾ 또 나라를 부유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근본에 힘쓰는 것이며,⁹⁾ 외이를 방어하는 방법도 삼강(三綱)의 중요함과 오상(五常)의 위대함과 예악(禮樂)과 문장(文章)의 성대함과 도학의 연원의 바름을 잘 붙잡아 세우고 이것을 닦아 밝히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⁰⁾ 유증교는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인륜의 관계를 잘 수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척사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삼강오상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인 가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 바로 이러한 서양에 대한 유증교의 척사의 방법으로 그의 가족 담론은 이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3. 유증교의 저술에 담긴 가족 담론

유증교는 「유씨가전」에서 집안을 화목하게 이끄는 핵심적 원리[御家道]로 ‘정윤리(正倫理)’와 ‘독은의(篤恩義)’ 꼽았다. 이 두 원리는 부친이 교훈으로 남겼던 ‘명분을 신중히 하고[謹名分], ‘애경을 높인다[崇愛敬]’는 두 마디 말에서 그 뜻을 가져왔다.¹¹⁾ 이름에 합당한 위계질서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윤리를 바로 세우며, 비유에 대한 자애로운 태도와 존장에 대한 공경한 태도 즉 애경을 높여서 집안 구성원들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1) 정윤리: 명분적 질서와 부자의 천륜 강조

명분은 ‘명위등분(名位等分)’, 즉 이름과 지위의 등급을 구분한 것이다.¹²⁾ 유증교는 ‘명분을 신중히 한다.’는 것의 의미를 존비장유(尊卑長幼)의 체제, 종지적첩(宗支嫡妾)의 등급, 내외상하(內外上下)의 구분이라고 하였다.¹³⁾ 그는 명분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고 여러 가지 일의 기장을 세우는 근본이므로 매일 익히고 닦아야 집안에서 재앙과 난리가 발생하지 않고, 국가나 천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¹⁴⁾

유증교는 ‘정윤리’에서 이름과 지위의 등급에 따라서 그 관계를 분류하였다. 종자법에 따라 시조를 계승한 종자 대종(大宗)은 일족(一族)의 주인이 되며, 고조를 계승한 종자 소종(小宗)은 일문(一門)의 주인이 되고, 증조 이하를 계승하는 종자는 종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일가(一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천 번째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사당제사와 같은 중임을 담당할 전중(傳重[승중承重])을 정하는 규칙, 부자조손(父子祖孫)의 윤리를 세우는 소목(昭穆)의 원칙, 형제(여형제, 서형제 등을 포함)의 순서를 정하는 규칙, 내외를 구별하는 규칙, 부계친에서 구족(九族)과 오세(五世)의 친친 관계, 부족을 중시하고 모족을 가벼이 하는 친친 관계,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자나 시집간 자의 관계망에 대한 규칙, 첩과 노비 등의 관계 등을 기술하였다. 이는 가족의 관계를 존비장유(尊卑長幼),

7) 『省齋集』 권32, 「講說雜稿·甲申重修講規後告同講諸子文」 “四海腥膻之餘, 西洋淫邪, 晦冥宇內.(중략) 此誠吾屬危急存亡之秋也.”

8) 『省齋集』 권35, 「講說雜稿·三綱五常說」 “孟子曰, 君子反經而已矣, 經正則庶民興, 斯無邪慝矣.”

9) 『省齋集』 권2, 「除司憲府持平後陳情疏」 壬午九月, “先王之政, 富國有道, 務本抑末, 量入爲出而已. 強兵有道, 培養忠孝, 獎勵節義, 使之親其上而死其長.”

10) 『省齋集』 권2 「除司憲府持平後陳情疏」 壬午九月 “至於防禦外夷之道, 亦有其說. 夫中華之所以爲中華而異於夷狄者, 以其有三綱之重五常之大禮樂文章之盛道學淵源之正也. 謀國者政宜扶植此物, 修明此物, 以爲保全宗國之命脈.”

11) 『省齋集』 권45, 「柳氏家典·御家」 “大凡御家之道, 正倫理篤恩義【先訓謹名分崇愛敬兩言, 卽是此意】”

12) 『상변통고』 권29, 「家禮考疑 上·序」 “名分, 名位等分.”

13) 『省齋集』 권39, 「柯下散筆·敬題皇考戒家衆辭後」 “所謂謹名分者, 尊卑長幼之體, 宗支嫡妾之等, 內外上下之分, 此有家名分之所在.”

14) 『省齋集』 권39, 「柯下散筆·敬題皇考戒家衆辭後」 “所以維繫衆心, 綱紀庶事之本, 不可一日而不講且修焉. 歷觀古今人家禍亂, 未有不先失乎此而致之者, 天下國家, 夫豈有二理哉.”

종지적첩(宗支嫡妾), 내외상하(內外上下) 등으로 분별하여 각자의 역할을 설명한 것이었다.

유종교는 이와 같은 기존의 유학 전통 속에서 계승되어 왔던 가족 윤리 질서를 따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부자의 천륜도 강조하였다. 유종교는 당시 사대부가에서 서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즉,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중자를 정할 때에 적자와 서자가 모두 없다고 고한 후 죽인을 후사로 삼는 것에 대해 패륜이라고 여겼다. 부자는 혈육 관계이므로 서자가 있다면 그를 후사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그는 전통적 유교의 명분에 따른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특히 조부-부-자로 이어지는 一體의 혈맥과 정기의 감응을 강조하였다.

2) 일상 의례의 실천을 통한 애경(愛敬)의 구현

유종교는 ‘사랑과 공경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애로우면서도 엄하고, 자식은 효도하고 공경하며, 형은 사랑하면서도 훈계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신중하며, 남편은 온화하면서도 의롭고, 아내는 순응하고 바른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사람의 마음은 은혜가 의리보다 크면 절제를 잃고, 의리가 은혜보다 중요시되면 정이 사라지므로 은혜와 의리를 조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유종교는 당시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선조의 제사를 받들 때에도 당시 사람들이 공경하는 마음을 잃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를 평소에 부모를 섬기는데 있어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일상에서 공경하는 예를 실천하고자 한 그의 문제의식이 ‘사친삼의’로 정리되었고 다시 한 번 「유씨가전」에 정리되었다.

사친삼의는 유종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의절이 만들어졌다. 특히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의절[晨昏定省儀]은 이제까지 자세한 의절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 당연해 보일 정도로 일상의 소소한 행위를 절차로 구체화 한 것이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참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은 매달 두 차례 사당에 참알하는 의례가 끝나면 집안의 성인남녀 모두가 모여 부모님께 배례하고 각 항렬별로 서로 배례를 하여 애경을 표현하는 의례였다. 그리고 모두 모여 집안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선조의 유훈인 『계사』와 유학의 기본서인 『소학』, 가정 예법서인 『가례』를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질서를 내면화 하였다.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사철 첫 달의 초하루라고 하는 정기적인 시기와 부모의 생신날 아침과 부정기적인 집안 잔치 때에 집안의 가장에게 축원과 헌수를 올리는 계절마다 장수를 축원하는 의절[時節上壽儀]도 거행하였다.

유종교는 이처럼 자신의 집안에서 거행하였던 일상의 행사들을 별도의 의절로 저술하였다. 그는 ‘예법을 숭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그 곳의 문명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때의 예법을 변함없는 절대 불변의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유종교는 예와 악이 성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그 탄생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약을 미루어서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유중교의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실제 행례를 정리하여 작성하였던 「사친 삼의」를 「유씨가전」에 수록하였다는 것은 가족의 일상생활에서 예법의 실천을 통해서 애경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

19세기 위정척사지식인 유중교는 대내적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대외적으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자수호조약 등의 역사적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격변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실천적인 운동의 입장에서는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 계열의 지식인으로 분류되는데, 그의 저술 「유씨가전」의 첫 번째 항목을 ‘정윤리’라고 정했을 정도로 그가 ‘지키고자 한 올바른’이 ‘윤리’였음을 알 수 있다. ‘위정(衛正)’은 수호해야 할 대상이며 동시에 지켜내기 위한 실천의 방향을 드러낸다. 대외적 항쟁방식으로서 ‘위정척사’를 개인이나 가족의 영역에서의 항쟁방식으로서 이해할 때 모두 ‘너’로 호명되고 ‘나’와 일체가 되어 감응하는 선조를 부정하는 관계는 사악한 것이며 도무지 소통할 수 없는 짐승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족을 결속하는 질서의 확립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절의 습득’에 대한 그의 언설이 담긴 「유씨가전」은 위정척사를 위한 가족 관계의 실천 담론을 집약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 유중교, 『성재집』
- 유장원, 『상변통고』

가족상황차별인식으로 보는 지역의 보수성 탐색¹⁾ : 지역권역별 세대와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 서론

지역에서 가족 가치관이나 젠더의식은 쉽게 보수적이라고 평가절하되거나 혹은 지역 사회의 보수성이라는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것과 달리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에서는 어떤 특정 유의미한 입장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기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보수적이다”라고 말할 때의 보수는 어떤 학술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에 의해 통용되기보다는 사전적 의미에 기대어있다. 그렇기에 지역이 보수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지역은 사회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기존의 상황과 조건을 유지하려는 성향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런 보수성을 “시대에 뒤떨어진”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보수성의 복합적 차원을 단순화하여 측정하거나 인식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최태룡, 2005:33-34).

그 동안 가족의 보수성을 직간접적으로 진단하고 그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가족 가치관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며, 주로 가족 가치관을 드러내는 하위요소, 즉 결혼관, 자녀관, 부부역할 및 성역할 분업관, 가족주의 등을 통해서 논의하였다(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43).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문화적으로 개개인의 삶과 가치관에 영향을 주며, 일상생활의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손승영, 2006:247). 특히 이때 주목되는 한국의 가족주의 특성이자 보수주의적 태도로 인식되는 전통적 가족주의는 가부장제적 성역할 태도에 수용적이고, 의존과 부양, 돌봄 등의 규범적 틀을 전제로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사회구성 단위의 기초로 개인 보다 가족이 중심 또는 우선시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이명호, 2013/2020; 김은정, 2016). 또한 이는 단순히 관계적 태도, 가치관의 측면이 아니라 혈연과 결혼중심의 제도적 가족을 ‘정상’이자 ‘표준’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조윤명·김영미, 2020).

최근 지역에서 가족의 보수적 측면은 현재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와 관

1) 2021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지역에서의 가족실천은 보수적인가?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국사회과학연구』 제 40권 3호(2021.12.30.)에 게재된 원고를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련해 한편으로는 변화해야 하는 측면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특히 인구위기론이 대두되는 주요 지역들의 주요 출산 시책, 인구 정책들은 일 생활 균형, 성평등, 임신에서 출산, 보육에 이르기까지 여성 돌봄의 역할 지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 돌봄 참여, 돌봄의 인프라 구축 등 돌봄의 공공성을 더 강조한다(강동우 외 2018; 김상민·박진경, 2018). 그러나 이러한 지역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둘러싼 인식 및 태도를 논할 때 변화된 혹은 현재적 상황에 대한 진단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였다. 특히 보수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한 가족경험, 생애과정 및 주기에서의 경험(결혼, 출산 등)이 개인의 삶, 특히 여성과 청년의 삶과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연구되었지만(유계숙 외, 2018; 박주희, 2016), 주로 특정 세대의 생애변화 과정 또는 가족 경험이 자신의 가족 구성과정, 가족실천 과정에서 차별적 경험으로 인지되는지, 덧붙여 사회 속에서 이러한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는 연결되지 못하였다. 지역은 세대와 성별은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내의 차별 해소 혹은 가족상황에 따른 사회적 차별들은 성별 차이, 세대 차이 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머무르는 공간, 지역에서의 삶의 방식과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가족의 보수성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나아가 성별분업관이나 가족 가치관의 가족 가치관의 하위 범주들인 결혼관, 자녀관 등의 의식적 수준이 아니라 가족상황차별 경험 및 인식 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가족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지역규모별로 시민들의 가족상황차별인식 정도의 차이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필요 부분의 제언을 소략하여 신는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자 특성

1)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지역에서의 가족 질서와 가족실천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에서 2020년에 실시한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조사들이 지역에서의 성평등 및 가족 인프라, 주관적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집중하거나 제한된 사례연구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차별 인식 현황을 통해, 가족관계의 질적 변화, 가족 구성 및 형태에 따른 차별경험의 측면을 진단하고, 지역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은 가족형태 뿐 아니라 가족구성과정, 가족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가족이 생활하는 집 이외에도 일터, 공공기관 등 공적인 장소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개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한 종류이다(나영정 외, 2021: 5). 그 동안 가족 차별이 특정 가족 형태(예,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에 따른 사회적 차별경험만을 중심으로 다뤄지면서(김진희·박옥임, 2008; 김혜영, 2013; 이혜정·송다영, 2019; 정주섭, 2019), 가족 내부의 차별인식 등을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족상황차별 개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SPSS win 26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실천 실태, 가족상황차별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 백분율, 순위,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각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 교차분석, 일원배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상황차별인식과 관련된 경험 항목들의 경우, 실질적 응답률이 낮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가족상황차별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 경험을 드러다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응답 비중을 통해 가족 상황 차별의 민감성과 개선 기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각 항목은 4점 척도로,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크론바흐 알파(Cronbach)값은 .732이다. 가족상황차별인식점수의 하위변인의 총합의 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실천, 즉 생활비, 가사일, 교육 및 양육, 돌봄의 담당 비중이 높으며,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높고 및 경험 수준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게 코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농어촌권역, 대도시권역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세대별로는 전체, 지역 모두 청년세대보다 중년세대가 더 많았으며, 대도시권역은 청년세대가 45.9%인 반면,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에서는 41.1%로 교육 및 직장 등의 이유로 대도시로 청년세대가 이동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청년세대 비중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가구소득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대도시에서는 300만 원 이상 가구소득자가 81.2%였으며, 두 지역 모두 학력에 있어서도 고학력자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전체 1인가구는 11.5%였으며, 대도시가 농어촌지역보다 1인 가구 비중이 높았다. 가구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법적부부+혈연관계로 47.9%였으며, 농어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그 비중이 높았다. 삶의 만족도는 전국평균 1.90점이었으며, 중소도시에 비해서 대도시가 1.92점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구 분		전체	지역권역별	
			농어촌권역	대도시권역
		빈도(%)	빈도(%)	빈도(%)
성별	여성	1462(48.7)	701(48.6)	761(48.9)
	남성	1538(51.3)	742(51.4)	796(51.1)
세대	중년세대	1692(56.4)	849(58.9)	843(54.1)
	청년세대	1308(43.6)	593(41.1)	714(45.9)
학력	고졸이하	356(11.9)	210(14.5)	146(9.4)
	대재/졸이상	2644(88.1)	1232(85.5)	1412(90.6)
직업	경제활동종사	2355(78.5)	1126(78.1)	1230(78.9)
	전업주부	371(12.4)	179(12.4)	192(12.4)
	학생,무직	273(9.1)	138(9.6)	135(8.7)
가구 소득	300만원미만	631 (21.0)	337(23.4)	293(18.8)
	300만원이상	2369(79.0)	1105(76.6)	1264(81.2)
가구 형태	1인가구	346(11.5)	154(10.7)	192(12.3)
	법적(동거)부부(2인가구)	226(7.5)	119(8.3)	107(6.9)
	법적부부(동거)+혈연관계	1438(47.9)	705(48.9)	733(47.1)
	혈연관계	898(29.9)	418(29.0)	480(30.8)
	기타	92(3.1)	45(3.1)	46(3.0)
삶의 만족도	불만족	1079(36)	538(37.3)	541(34.7)
	보통이다	1126(37.5)	527(36.5)	599(38.4)
	만족	795(26.5)	377(26.1)	795(26.5)
	평균(표준편차)	1.90(0.78)	1.89(0.79)	1.92(0.78)
지역	총합	3000(100)	1442(48.1)	1557(51.9)

3. 분석 결과

: 지역권역별 가족상황차별인식의 항목간 차이-성별, 세대별 평균비교

지역권역별 성별비교를 통해 가족상황차별경험 및 인식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대도시권역의 온라인에서의 가족상황차별 경험에서 성별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든 항목에서 성별간 차이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농어촌권역에서 여성이 남성 보다 뉴스 및 언론(여성, M=2.037, 남성, M=2.191), 문화콘텐츠(여성, M=2.410, 남성, M=2.261), 온라인(여성, M=2.478, 남성, M=2.384)에서 더 차별경험을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가족상황차별 정도(여성, M=3.095, 남성, M=2.783) 역시 더 높게 인식하였다. 대도시권역에서도 여성이 뉴스 및 언론(여성, M=2.372, 남성, M=2.288), 문화콘텐츠(여성, M=2.416, 남성, M=2.307)에서 남성 보다 더 차별경험을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가족상황차별 정도(여성, M=3.111, 남성, M=2.776) 역시 더 높게 인식하였다(<표2>참조).

〈표2〉 가족상황차별인식 항목별 평균: 지역별, 성별비교

구분	항목	농어촌권역				t	대도시권역				t
		M		SD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가족 상황 차별 의식	①	2.342	2.601	0.966	1.015	-4.574***	2.364	2.670	1.011	0.995	-5.660***
	②	2.191	2.307	0.820	0.852	-2.623**	2.288	2.372	0.845	0.857	-1.953**
	③	2.261	2.410	0.864	0.899	-3.207***	2.307	2.416	0.854	0.866	-2.508***
	④	2.384	2.478	0.893	0.948	-1.949**	2.474	2.542	0.923	0.916	-1.466
	⑤	2.783	3.095	0.772	0.691	-8.068***	2.776	3.111	0.770	0.707	-8.928***
총평균점수		2.388	2.573	0.606	0.644	-5.600***	2.440	2.618	0.614	0.615	-5.703***

주: 각 항목은 ①생활동반자법필요, ②언론차별, ③문화컨텐츠차별, ④온라인차별, ⑤가족형태차별정도
p<.05, *p<.001

가족상황차별인식에서는 지역의 주효과는 언론차별(F=4.724, p<.05), 온라인차별 경험(F=3.777, p<.05), 가족상황차별인식 평균점수(F=4.690, p<.05)에서 나타났으며, 성별의 주효과는 생활동반자법지지(F=54.148 p<.001), 언론차별(F=9.182, p<.05), 문화컨텐츠차별(F=10.249, p<.05), 온라인차별(F=4.854, p<.05), 가족형태차별정도(F=135.384, p<.001)로 각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지역권역과 성별에 따른 가족상황차별인식의 항목별 차이

항목	변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①	지역권역별	1.329	1	1.329	1.338	0.248
	성별여부	53.795	1	53.795	54.148	0.000
	지역권역별 * 성별	0.373	1	0.373	0.376	0.540
	오차	2635.717	2653	0.993		
②	지역권역별	3.317	1	3.317	4.724	0.030
	성별여부	6.448	1	6.448	9.182	0.002
	지역권역별 * 성별	0.058	1	0.058	0.082	0.774
	오차	1862.964	2653	0.702		
③	지역권역별	0.025	1	0.025	0.033	0.855
	성별여부	7.733	1	7.733	10.249	0.001
	지역권역별 * 성별	0.085	1	0.085	0.113	0.737
	오차	2001.715	2653	0.755		
④	지역권역별	3.162	1	3.162	3.777	0.052
	성별여부	4.063	1	4.063	4.854	0.028
	지역권역별 * 성별	0.086	1	0.086	0.103	0.749
	오차	2220.931	2653	0.837		
⑤	지역권역별	0.001	1	0.001	0.002	0.961
	성별여부	72.163	1	72.163	135.384	0.000
	지역권역별 * 성별	0.010	1	0.010	0.018	0.894
	오차	1414.110	2653	0.533		
평균	지역권역별	1.796	1	1.796	4.690	0.030
	성별여부	25.106	1	25.106	65.545	0.000
	지역권역별 * 성별	0.005	1	0.005	0.013	0.908
	오차	1168.639	3051	0.383		

주: 각 항목은 ①생활동반자법필요, ②언론차별, ③문화컨텐츠차별, ④온라인차별, ⑤가족형태차별정도
*p<0.1, **p<0.05, ***p<0.001

다음으로, 지역권역별 세대비교 결과를 보면, 농어촌권역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온라인에서의 차별경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정도의 인식에서 세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대해서 청년세대(M=2.654)가 중년세대(M=2.367)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며, 온라인에서의 가족형태 등에 따른 차별 및 혐오에 대한 경험 역시 청년세대(M=2.572)로 중년세대(M=2.391)보다 높았다. 한국사회의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 역시 청년세대(M=2.971)가 중년세대(M=2.911)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대도시권역에서의 세대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생활동반자법 필요, 온라인차별경험, 가족상황차별평균 점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도시권역도 마찬가지로 중년세대에 비해 전 항목에서 차별인식 및 경험정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활동반자법 필요에서 청년세대(M=2.633)가 중년세대(M=2.343), 온라인 차별 경험에서 청년세대(M=2.580)가 중년세대(M=2.949)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표 4> 가족상황차별인식 항목별 평균: 지역권역별, 세대비교

항목	농어촌권역					대도시권역				
	M		SD		t	M		SD		t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청년	중년	
①	2.654	2.367	1.021	0.978	53.281***	2.633	2.343	1.048	0.982	27.872***
②	2.307	2.276	0.873	0.824	.968	2.290	2.272	0.876	0.813	.177
③	2.339	2.355	0.894	0.856	.254	2.332	2.352	0.905	0.848	.203
④	2.572	2.391	0.945	0.894	28.960***	2.580	2.396	0.944	0.890	15.868***
⑤	2.971	2.911	0.792	0.722	4.700**	2.978	2.949	0.809	0.713	.580

주: 가족상황차별인식 각 항목은 ①생활동반자법필요, ②언론차별, ③문화컨텐츠차별, ④온라인차별, ⑤가족형태차별정도 **p<.05, ***p<.001

4. 결론 및 논의

가족상황차별인식 항목별로 지역권역과 성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지역의 주효과는 언론차별경험, 온라인 차별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대도시권에서 언론차별경험과 온라인차별 경험 정도가 더 많았다. 언론과 온라인차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년세대의 접근과 이용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청년세대의 차별경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그 차이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출 빈도의 차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차별의 민감성 또는 가족상황차별 인식 수준의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가 가족가치 관 및 가족 개념에 있어 가족구성의 다양성 수용도, 정상가족이 대물로기에 대한 비판적 태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유계숙 외, 2018)를 토대로 볼 때, 가족형태차별정도에 있어 청년세대의 민

감성은 중년세대와 다르다. 또한 가족상황차별 경험이 주로 대도시권역의 언론과 온라인 경험에 있다는 점에 제도적인 측면의 차별 뿐만 아니라 일상에 잠재되어 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과 언론과 같은 일상적 매체를 통해 가족상황차별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점에 비해, 이에 대한 지역(언론, 지자체, 교육, 플랫폼)의 역할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력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권역별로 보다 종래의 양성평등적 인식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가족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운영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권역 및 대도시권의 중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성인교육프로그램을 보다 성인지적 측면에서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가족상황차별인식을 통해서 각 지역(삶의 공간)에서 어떤 역할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시한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특정 지역의 보수성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미시적 실천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실태파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가족구성권연구소(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강동우·고영우·김현지·남수연·전은하(2018). 『인구구조 변화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역고용 정책 사례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상민·박진경(2018).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략: 강원도 화천군을 사례로」. 『지방행정연구』, 32(1): 125-160
- 김소임(2007).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담론분석: 가족관련 법 및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16). 「변화하는 가족과 가족연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모색」. 『사회사상과 문화』, 19(3): 147-190.
- 김진희·박옥임(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농촌사회』, 18(1): 127-160.
- 김혜영(2013).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젠더와 문화』, 6(1):7-41.
- 박주희(2016). 「가족가치관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기대가 남녀 대학생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34(4):21-35.
- 손승영(2006). 「한국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과시- 지속과 변화」. 『담론201』, 9(2): 245-274.
- 유계숙·강민지·윤지은(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 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이명호(2013).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359-393.
- 이명호(2020). 「종교지형과 가족의례의 변화, 그리고 가족」. 『한국학논집』, 81: 61-98.
- 이해정·송다영(2019). 「한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차별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5: 43-65.
- 정주섭(2019).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심층면접연구를 통한 양적연구의 보완」. 『한국범죄심리연구』, 15(4): 163-188.
- 조윤명·김영미(2020). 「생계부양자모델 전환기의 젠더규범과 출산 의도: 혼합방법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43(4): 69-97.
- 최태룡(2005). 「지역의 보수성 비교」.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춘계학술대회, 627-632.
- 나영정·추주희·강의혁·김소형·김순남·김원정·김청우·김현경 외(2021).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실태조사』. 광주: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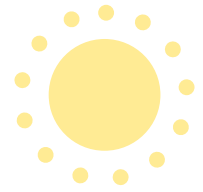
연구동향

1. 인포그래픽 - 가족유형별 가족실천 부담 현황
2. 가구유형별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탐색(오영은)

*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 자료와 시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 이슈, 세계가족정책 사례 및 통계들을 재구성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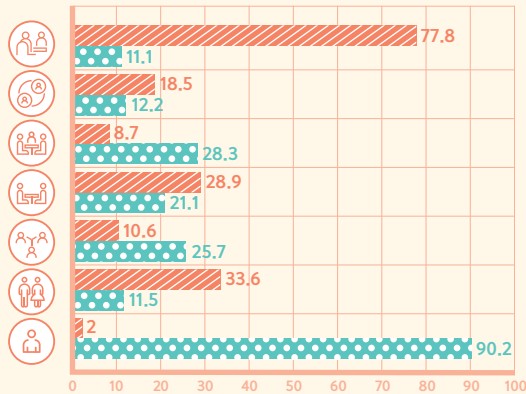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그래픽스

가구유형별 가족실천 부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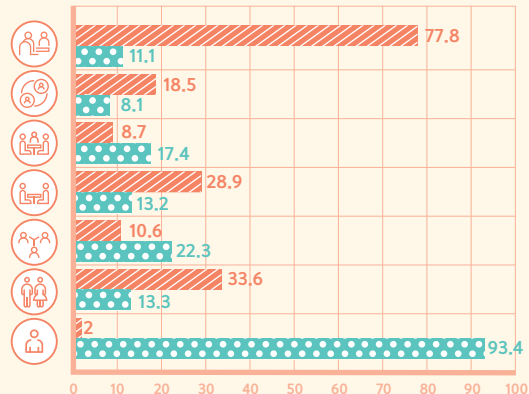


골고루 부담
 내가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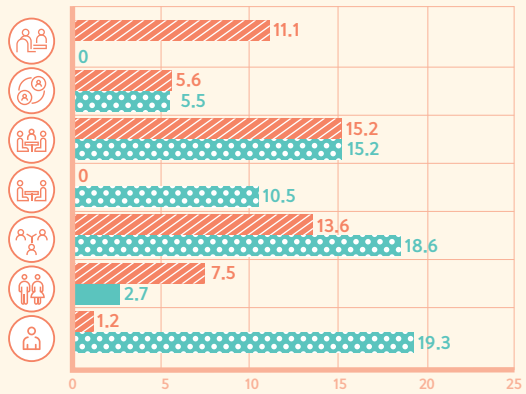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 부담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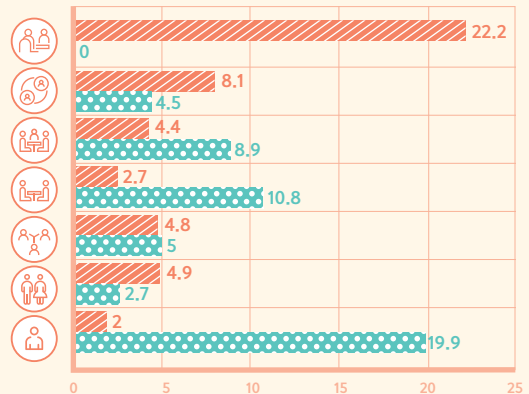
가사일 부담 실천 (요리, 청소, 세탁 등)



자녀양육과 교육분담 실천



노인과 환자 돌봄 부담 실천



-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 파트너십 동거관계+다른가족 포함
- 파트너십 동거관계(2인 가구)
- 법적 부부+혈연관계 포함
- 법적 부부(2인 가구)
- 1인 가구



가구유형별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탐색

오영은(전남대 인문학연구원)

I. 들어가며

근대 후기 현대사회의 가족은 시공간의 유연성, 가족 다양성의 증대, 가족-가구의 불일치와 생애주 기상 다양한 가족형태의 경험, 1인 가구화 등의 특징이 있다. 그 중 가족실천(family practices)은 변화하는 가족현상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개념이다(김혜경, 2019). 모건은 가족실천을 적립한 학 자로서 가족 실천이란 가족이 삶에서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작은 파편들(fragments)로서 이 개념에는 실천행위자의 합리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위자=실천자(paractitioners)의 행 위에는 감정적 행위, 애정적 행위, 관습적·습관적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Morgan, 2011). 예컨대, 가족 이라면, 크리스마스에 모여야 한다고 이해되어왔다면, 모건의 개념을 따르면, 크리스마스에 모이는 행위가 가족 실천이며, 이때의 가족 실천을 통해서 가족 하기(doing)가 나타난다고 말한다(Morgan, 1996). 아이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돌봄의 행위,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행위, 음식 을 하는 행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은 수많은 행위와 실천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 형성된 다. 이처럼 실천은 일상감각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데 가족 실천은 실천행위자의 당연시 된 삶의 일 부분을 구성하는 일상생활의 조각이며, 가족실천이 시연되는 다양한 맥락을 재조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혈연과 제도의 인정을 밑바탕에 둔 핵가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가족 실천이 이뤄지는 다양한 가족 구성의 형태와 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된다. 즉, 누가 어떻게 가족 실천을 수 행하는지, 가족이 구성되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각각의 가족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가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성의 변화 양상을 직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도와준다.

이번호는 지난 호에 이어서 2020년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실시한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차 별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가족형태에서 가족 실천의 현재를 소개한다. 각 가족의 실천행위가 가구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다른 구성원과의 분담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실천행위가 가구별로 삶의 만족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II. 가구유형별 가족실천 분담과 삶의 만족도 탐색

1. 가구유형별 생활비 마련 실천 분담 현황

생활비 마련영역에서 1인 가구의 경우 90.2%가 '내가 전담' 하는 것으로 나타나 1인가구의 대다수는 생활비를 자신이 전담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부부와 혈연관계를 포함한 가구에서는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의 비율이 26.4%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의 응답은 '다른 가족원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관계(32.6%)'와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29.6%)'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한다는 비율은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77.8%)'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법적부부(38.1%)'와 '파트너십 동거관계(34.2%)'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전담률이 가장 높았으며, 법적부부와 혈연관계를 포함한 가족의 형태에서는 내가 전담하거나 내가 주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 일부 분담률이 높았고, 파트너십 동거관계나 파트너십이 아닌 비혈연관계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1> 가구유형별 생활비 마련 실천 현황

단위: N(%)

	가구형태							전체
	1인 가구	법적 부부 (2인가구)	법적 부부+혈연 관계 포함	파트너십 동거관계 (2인 가구)	파트너십 동거관계+ 다른가족 포함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내가 전담	313 (90.2)	26 (11.5)	370 (25.7)	8 (21.1)	13 (28.3)	110 (12.2)	1 (11.1)	841 (28.0)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	10 (2.9)	35 (15.5)	379 (26.4)	8 (21.1)	11 (23.9)	123 (13.7)	1 (11.1)	567 (18.9)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	11 (3.2)	38 (16.8)	310 (21.6)	3 (7.9)	15 (32.6)	266 (29.6)	0 (.0)	643 (21.4)
다른 가구원이 전담	7 (2.0)	41 (18.1)	243 (16.9)	6 (15.8)	3 (6.5)	210 (23.4)	0 (.0)	510 (17.0)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	6 (1.7)	86 (38.1)	136 (9.5)	13 (34.2)	4 (8.7)	190 (21.1)	7 (77.8)	442 (14.7)

2. 가구유형별 가사일 실천 분담 현황

다음으로 요리, 청소, 세탁 등 가사일의 실천영역에서의 분담 현황을 살펴보면 역시 1인 가구의 전담비율이 93.4%로 가장 높았고, 법적부부의 경우 가구원 모두 골고루 분담(33.6%), 혈연관계를 포함한 법적 부부형태에서는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분담하는 비율(35.3%), 파트너십 관계에서는 내가 주가 되거나 다른 가구원이 주가 되어 서로 나누어서 분담해주는 형태(39.5%)가 가장 많았고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비혈연관계에서는 가구원 모두 골고루 분담의 비율(7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가사일 실천 부담율이 가장 낮았고 전반적으로 법적 부부가구, 파트너십동거, 혈연관계 동거, 비혈연관계 동거 등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유형은 요리, 청소, 세탁 등 가사일에 있어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통계를 통해 가사일 실천영역에서 1인 가구의 부담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2021)의 연구결과와도 연관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1인 가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42.4%)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려운 점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가사의 어려움’, ‘부양가족의 부재’, ‘외로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는 외로움 등의 정서적 어려움도 겪고 있지만 식사, 가사, 돌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었다.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의 가사분담률이 높은 부분을 살펴보면, 비혈연관계의 동거자들은 동거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최희경과 이인숙(2005)의 연구에서 혈연가족이 아닌 비정형 가족구성원들은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부모 자식간 위계적 가족관계의 경계를 허물고 가족생활에 적합한 역할을 재구성하여 확대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 재구성의 측면은 궁극적으로 관계의 평등성을 지향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성 역할과 그것의 경계 허물기는 경제활동 및 가사의 해결에 있어서 획일화된 형태를 벗어나 다양하고 유연한 역할분담이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가구유형별 요리, 청소, 세탁 등 가사일 실천 부담현황

단위: N(%)

	가구형태							전체
	1인 가구	법적 부부 (2인가구)	법적 부부+혈연 관계 포함	파트너십 동거관계 (2인 가구)	파트너십 동거관계+ 다른가족 포함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내가 전담	323 (93.4)	30 (13.3)	320 (22.3)	5 (13.2)	8 (17.4)	73 (8.1)	1 (11.1)	760 (25.3)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	8 (2.3)	69 (30.5)	358 (24.9)	15 (39.5)	14 (30.4)	111 (12.4)	1 (11.1)	576 (19.2)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	5 (1.4)	47 (20.8)	508 (35.3)	4 (10.5)	17 (37.0)	398 (44.3)	0 (0)	979 (32.6)
다른 가구원이 전담	3 (0.9)	4 (1.8)	99 (6.9)	3 (7.9)	3 (6.5)	150 (16.7)	0 (0)	262 (8.7)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	7 (2.0)	76 (33.6)	153 (10.6)	11 (28.9)	4 (8.7)	166 (18.5)	7 (77.8)	424 (14.1)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20)

3. 가구유형별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실천 부담 현황

자녀의 양육과 교육 영역의 가족실천에서도 1인 가구의 전담비율이 19.3%로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분담하는 비율은 ‘다른 가족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 관계’가 32.6%로 가장 높았고,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분담은 ‘혈연관계를 포함한 법적 부부관계’가 33.3%로 다른 가구유형보다 높았다. ‘다른 구성원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 관계’와 ‘혈

연관계를 포함한 법적 부부관계는 동거하는 가구구성원이 골고루 또는 일부 분담 통해 양육과 교육 영역의 가족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녀가 있는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양육과 교육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가구유형별 자녀의 양육과 교육 실천 현황

단위: N(%)

	가구형태							전체
	1인 가구	법적 부부 (2인가구)	법적 부부+혈연 관계 포함	파트너십 동거관계 (2인 가구)	파트너십 동거관계+ 다른가족 포함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내가 전담	67 (19.3)	6 (2.7)	268 (18.6)	4 (10.5)	7 (15.2)	49 (5.5)	0 (0)	401 (13.4)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	2 (0.6)	5 (2.2)	395 (27.4)	1 (2.6)	15 (32.6)	34 (3.8)	0 (0)	452 (15.1)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	3 (0.9)	7 (3.1)	479 (33.3)	6 (15.8)	11 (23.9)	56 (6.2)	0 (0)	562 (18.7)
다른 가구원이 전담	8 (2.3)	2 (0.9)	58 (4.0)	0 (0)	1 (2.2)	80 (8.9)	0 (0)	149 (5.0)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	4 (1.2)	17 (7.5)	196 (13.6)	0 (0)	7 (15.2)	50 (5.6)	1 (11.1)	275 (9.2)
해당없음	263 (75.8)	189 (83.6)	43 (3.0)	27 (71.1)	5 (10.9)	629 (70.0)	-8 (88.9)	1164 (38.8)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20)

4. 가구유형별 노인과 환자의 돌봄 실천 분담 현황

노인과 환자의 돌봄 영역의 실천에도 1인가구의 실천률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인 가구의 노인과 환자 돌봄 전담 비율은 19.9%로 나타나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았다. ‘혈연관계를 포함한 법적부부’와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관계’는 가구 구성원간 분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동거 가구유형은 다른 가구원이 전담하거나 가구원 모두가 골고루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높아 가구별 상황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1인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구원과 분담하기 보다는 오히려 1인가구이기 때문에 노인과 환자의 돌봄을 실천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2021)의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제적 부양율은 13%이며 부양가족은 부모, 자녀, 배우자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돌봄을 하는 비율은 7.9%이며 40대 50대가 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따로 사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1인 가구의 가족실천을 살펴보면 경제활동, 가사에서 분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데에서 자녀 돌봄이나 노인과 환자 돌봄에서도 전적 담당률이 높아 이들의 생활부담률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1인가구의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나 정책을 세워야 하겠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족부양과 돌봄 제공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표 4〉 가구유형별 노인과 환자의 돌봄 실천 분담 현황

단위: N(%)

	가구형태							전체
	1인 가구	법적 부부 (2인가구)	법적 부부+혈연 관계 포함	파트너십 동거관계 (2인 가구)	파트너십 동거관계+ 다른가족 포함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내가 전담	69 (19.9)	6 (2.7)	72 (5.0)	4 (10.8)	4 (8.9)	40 (4.5)	0 (0)	195 (6.5)
내가 주로 담당하고 다른 가구원이 일부 분담	6 (1.7)	6 (2.7)	114 (7.9)	0 (0)	5 (11.1)	45 (5.0)	0 (0)	176 (5.9)
다른 가구원이 주로 담당하고 내가 일부 분담	7 (2.0)	6 (2.7)	120 (8.4)	4 (10.8)	6 (13.3)	64 (7.1)	0 (0)	207 (6.9)
다른 가구원이 전담	6 (1.7)	0 (0)	34 (2.4)	0 (0)	0 (0)	69 (7.7)	0 (0)	109 (3.6)
가구원 모두가 풀고루 분담	7 (2.0)	11 (4.9)	69 (4.8)	1 (2.7)	2 (4.4)	73 (8.1)	2 (22.2)	165 (5.5)
해당없음	252 (72.6)	197 (87.2)	1028 (71.5)	28 (75.7)	28 (62.2)	607 (67.6)	7 (77.8)	2147 (71.6)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20)

5. 가구유형별 삶의 만족도

다음으로 가구유형별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도는 법적 부부가구가 3.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혈연관계를 포함한 법적 부부 3.00점, 다른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 관계 가구 2.76점, 파트너십 동거 관계 가구 2.66점,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동거 가구 2.65점, 1인 가구 2.59점,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 관계 동거 가구 2.23점으로 나타났다. 법적부부와 혈연관계를 포함한 법적부부가구 유형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높았고 1인가구와 비혈연동거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하였다.

〈표 11〉 가구유형별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가구형태							전체
	1인 가구	법적 부부 (2인가구)	법적 부부+혈연 관계 포함	파트너십 동거관계 (2인 가구)	파트너십 동거관계+ 다른가족 포함	파트너십 아닌 혈연관계	파트너십 아닌 비혈연관계	
삶의 만족도	2.59	3.11	3.00	2.66	2.76	2.65	2.23	2.85
	ab	c	bc	abc	bc	a	abc	
F= 19.86***								

자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2020)

다음으로 가구유형별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 가구별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인가구의 경우, 가족실천 중 노인 및 환자 돌봄이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1인가구의 경우 노인과 환자의 돌봄을 자신전담이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부부 2인가구는 생활비 마련과 청소, 세탁, 음식마련 등 가사변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즉 생활비마련을 나 자신이 전담하지 않고 다른 가족 가족구성원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청소세탁 음식 마련 등 가사 일은 내가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포함한 법적 핵가족형태의 가족의 경우 노인과 환자돌봄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노인 및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 내가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가족을 포함한 파트너십 동거가구는 유의미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혈연가구 동거는 생활비 마련, 청소, 세탁, 음식마련 등 가사 관련 변인이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비 마련은 내가 더 많이 기여할수록, 청소, 세탁, 음식 마련 등 가사일은 다른 가족구성원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로 가족실천 분담 관련 변인이 상이하고 가족실천양상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가족실천 중 노인과 환자 돌봄의 변인이 이들의 삶의 만족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1인가구이기 때문에 돌봄의 부담이 적고 독립적인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오히려 1인가구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독립한 형제자매 보다는 자신의 노부모나 형제 등의 환자들을 돌보는 경향성이 높을 수 있다. 이 때문에 1인가구가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데에서 다른 가족구성원들과 분담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의 기여도가 더 높을수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법적부부인 2인가구의 경우 생활비마련 영역에서는 다른 가족구성원, 즉 배우자가 더 많이 기여할수록 높고, 가사분담에서는 자신이 더 많이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부부간 분담에 있어 부부 갈등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점, 가사노동총량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부부간 갈등수준이 낮고 부부중심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간적, 환경적 여유가 있다. 부부 2인 가구의 삶 만족도는 다른 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2인 가구에서는 가사 일에서 자신이 더 기여해도 이들의 삶의 만족감을 떨어뜨리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포함한 법적 핵가족 형태의 가족의 경우, 노인과 환자돌봄을 자신이 더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노인 부양이 점차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가족과 본인, 그리고 사회 동시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부모부양책임주체: 가족 2002년 70.7%→2018년 26.7%, 자신 2002년 9.6%→2018년 19.4%, 사회 및 기타 2002년 19.7%→2018년 54.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각년도)에서 가족부양은 자신이 부모나 환자 부양에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높고 다른 구성원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에 낮은 만족감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자녀로서 부모를 부양해야한다는 책임감은 여전히 강하며, 형제자매 공평분담 부양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형제자매의 부양에 비해 자신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이들의 삶의 만족감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지만 노인이나 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은 여전히 삶의 에너지를 얻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가족내부양규범은 여전히 가족의 책임, 자녀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었다(최정혜, 1999).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 부양기능이 강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임정순, 정순돌, 2017).

<표 5> 가족실천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위: N(%)

가족실천분담	1인가구	법적부부 2인 가구	자녀포함법적 3인가구 이상	다른가족포함 파트너십 동거가구	혈연동거가구
	B(β)	B(β)	B(β)	B(β)	B(β)
생활비 마련	-.16(-.16)	.41(.46*)	-.05(-.07)	.05(.09)	-.16(-.21*)
청소,세탁, 음식 마련 등 가사	.22(.26)	-.63(-.67*)	-.03(-.04)	-.14(-.20)	.15(.20*)
양육교육돌봄	-.52(-.57)	.16(.18)	.08(.10)	.20(.28)	.02(.03)
노인환자돌봄	.72(.72*)	-.10(-.09)	-.11(-.15*)	-.09(-.13)	.03(.04)
R2	.08	.56	.02	.08	.06
F	1.65	5.33**	2.14	.38	2.63*

a *p<.05, **p<.01, ***p<.001

동거가구의 경우 가족실천이 삶의 만족에 별다른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동거가구는 기존의 혈연에 의한 가구에 비해 가족실천 분담이 결혼관계 만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또한 동거커플은 실용적 가치관을 가지고 형편이 되는 사람이 생활비나 가사일을 부담하고 자신의 독립성과 상호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개발 등 자신의 직업적 성취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기 때문에 실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이 기존의 가족실천과는 다른 변인이 이들의 삶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연동거가구의 경우 생활비 마련 실천영역에서 자신이 더 기여하는 경우, 청소, 세탁, 음식마련 등 가사 일에 있어서 다른 가족구성원이 더 많이 기여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가구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구성원과 함께 쓰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해볼 수 있으며 반면에 가사일의 경우 자신에게 전담되거나 자신이 더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III. 맺음말

이 글은 다양한 가구형태별로 가족실천 부담의 양상과 그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결과 1인가구의 가족실천 부담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생활비 마련 영역, 청소, 세탁, 음식 마련 등 가사 영역, 양육교육돌봄 영역, 노인환자돌봄 영역에서 다른 가구유형보다 월등하게 내가 전담하는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결과 동거가구원이 없는 1인 가구 구성원은 자신 스스로가 경제적, 도구적, 돌봄적 지원 역할에서 부담감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조사(2020)결과와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은 균형 잡힌 식사의 어려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하는 것의 어려움, 가사의 어려움, 부양가족의 부재, 외로움 등 이라고 했다. 1인 가구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어려움으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의 어려움이 가장 컸으며 이들이 아플 때나 돌봄이 필요할 때 돌볼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노부모부양과 환자돌봄을 자신이 전담하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이들은 노부모부양을 하지만 정작 이들이 아플 때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경우에 처할 수 있다. 1인 가구 구성원은 1인가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비율이 높아 향후 1인 가구의 건강, 돌봄, 경제, 심리 등 미래에 발생할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1인 가구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1인 가구 지원센터의 1인 가구 포털을 통해 연계되는 안전, 주거, 일자리, 외로움, 질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 단위 구 단위로 연계되는 노력들을 주목해볼 만하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혼자 시간이 길어진 1인 가구 노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연계, 심리상담 연계 등의 노력 등이 지역사회 공동체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애가 길어진 만큼 다양한 가구형태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구유형에 따라 실천부담 양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도 달랐다. 1인가구의 경우 노인 및 환자 돌봄을 다른 구성원과 분담 혹은 다른 구성원의 기여도가 더 클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적 2인가구는 생활비 마련은 다른 구성원이 할수록, 가사일은 자신이 더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유형은 노인 및 환자 돌봄에서 자신이 더 기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혈연동거가구는 생활비 마련은 본인이 더 기여할수록 가사일은 분담하거나 다른 가족구성원이 할수록 삶의 만족감이 더 높았다. 현재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치관과 근대의 가치관의 혼재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부로 엮여진 관계인지 형제자매 관계인지에 따라서 가족실천 부담이 다르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방향성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혈연을 비롯해 동거 등 친밀한 관계에서 가족실천 부담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법적 가족관계 내의 친밀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거자와의 가족실천에서의 민주성, 공정성, 합리성, 수용가능성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관계의 정치, 생활상의 미시적인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로 또는 같이'의 의식을 혈연가족만이 아닌 가족커뮤니티 단위로 인식하고 사고함으로써 혼자가가

닌 사회적으로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가족의 범위를 확장된 시각으로 봄으로써 생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가구형태의 적응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방안들을 마련할 때이다.

본 연구는 각 가구유형별 구성원들의 내면화된 가족가치관을 포함하지 않고 보았다는 점에서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가족의 실천행위에 주목해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거의 관계에서 이들의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혜경(2019). 가족구조에서 가족실행으로: 가족실천과 가족시연 개념을 통한 가족연구의 대안모색. 한국사회학, 53(3), 217-253.
- 임정숙, 정순돌(2017). 노인부양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세대와 중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58(0), 37-66.
- 여성가족부(2021). 2020년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Morgan (2011). Rethinking Family Practices. Palgrave Macmil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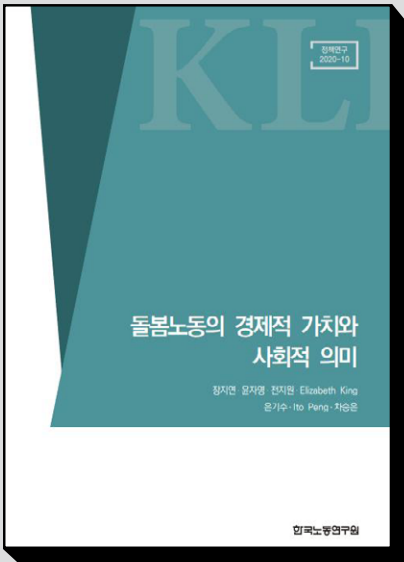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정책보고서 리뷰

- 한국노동연구원(2020),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 여성정책연구원(2021),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II)

*「정책보고서 리뷰」는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이슈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합니다.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 : 장지연

발행월 : 2020년 12월

종류 : 기본 연구보고서

<배경>

- 위기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위기는 이들에게 더 과중되게 나타나고 있음.
- 돌봄노동은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준 노동으로 어느 시점에도 멈춘적인 없는 노동임.
- 코로나 19 팬데믹은 이러한 돌봄노동의 의미를 한층 두드러지게 부각시켰는데, 노인과 환자를 돌보는 노동자의 노고가 더 커졌음.
- 로버트 라이히에 따르면 누군가가 원격근무를 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가능케 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한 이래, 많은 국가들에서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확보와 기본생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자로 정의되는 5개 직종 돌봄노동자를 포함시켜 주목하였음.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재가 및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민간 가사·간병인, 가정내외 수행되는 유무급 돌봄노동자임,
- 돌봄노동의 현실을 이해할 때 두가지 관점을 기반으로 이해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젠더적 관점 인데 노동시장 돌봄일자리의 대부분을 여성이 채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을 수행하느라 유급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여성은 유급노동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된다는 입장임. 또다른 하나는 유급 돌봄노

동과 무급 돌봄노동의 관계에서 돌봄의 사회화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더 이상 돌봄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유급돌봄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그리고 가치평가는 어떠하며 현재 유무급 돌봄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함.

<주요내용>

■ 제 2장은 무급돌봄노동의 실태와 경제적 가치추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룸.

- 2019년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무급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는데, 만 19세 이상 인구의 1인당 돌봄노동시간은 남성은 연간 484시간(주당 9.3시간), 여성은 1,396시간(주당 26.8시간)임.
- 대체비용법을 통해 남성이 수행한 돌봄노동은 최소 12조 7천억원, 여성은 37조 9천억원으로 추정됨. GDP대비 2.64%이상으로 보육서비스, 장기요양보호제도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 내 수행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제 3장은 돌봄의 댓가와 결정요인 중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기회비용적 부담에 대해서 다룸.

- 이 장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돌봄 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해 노인돌봄제공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 기회비용적 부담을 분석함. 조사자료에서는 노인가족 돌봄자 절반이상이 정신적, 신체적, 기회비용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었음.
- 응답자의 65%가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소, 61%는 지난 1년 동안 돌봄으로 인해 신체적 부담, 피로도, 질병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음. 누가 누구를 돌보는가 즉 돌봄자와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돌봄의 부담/대가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확인하였음. 특히 며느리의 경우 딸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누가, 왜, 어떤 매커니즘을 통해 돌봄을 담당하게 되는가가 이들의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영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안겨줌.

■ 제 4장은 코로나 19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에 대해서 다룸.

- COVID-19와 한국의 아동돌봄 조사결과 맞벌이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녀를 돌보던 것에서 6시간 47분으로 자녀돌봄시간이 크게 늘어났음. 전업주부의 자녀돌봄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 38분으로 증가했음.
- 남성의 자녀돌봄시간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증가하기는 했으나, 맞벌이 남성의 경우는 3시간에서 3시간 54분으로 늘어난 정도에 불과했으며 홀벌이 남성은 3시간 30분으로 30분 증가함.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좋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녀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음. 이런 경향은 전업주부가 가장 강했음.
- 자녀돌봄은 실제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되는 일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돌봄노동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 주었음. 특히 분석결과는 코

로나19로 인한 자녀돌봄의 부담 증가는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정되는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킴. 가정 내에서 무급 돌봄노동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의 심리적, 실질적 부담 증가에도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제 5장은 시간일지에 드러난 유급 돌봄노동자의 노동상황에 대해서 다룸.

- 유급 돌봄노동자 중에서 아동을 돌보는 노동자 300명과 노인을 돌보는 노동자 300명이 작성한 “시간일지”를 분석하여 이들의 하루 24시간 주 7일의 상황을 조명하였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 재가돌봄과 시설 돌봄을 구분함.
- 이들은 대체로 하루 8시간 근무에 1시간 반 정도의 출퇴근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일하는 시간대가 유동적이고 2교대 근무가 많으며 야간근무도 많은 직종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경우 하루 일과가 더 촘촘하고 긴박함.
- 돌봄의 과정이 조금 더 표준화되어 있어서 활동의 전환이나 반복성이 심하고 한 과업 당 지속시간은 짧음. 분절적인 일과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나 자율성도 거의 없음. 돌봄노동은 다른 유급 노동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임금인데 돌봄노동의 가치가 노동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노동과정이 덜 알려져 있기 때문임. 본 연구는 유급 돌봄노동의 노동과정에 관한 연구의 출발점이라는 의의를 가짐.

■ 제 6장은 돌봄노동의 임금수준이 향상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룸.

- 유급 돌봄노동을 다루었는데 통계로 포착되는 돌봄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왔음.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와 ‘가사 및 육아도우미’는 66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9,284원이었음.
- 이 장에서는 돌봄일자리 여부뿐 아니라 그 일자리가 속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 2013~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돌봄일자리의 임금과 관련한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함.
- 첫째, 돌봄일자리는 다른 유급 노동에 비해 저임금이라는 사실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돌봄노동자의 인적자원이나 고용의 불안정성 또는 자발적 경력단절의 영향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있음. 학력이나 근속기간 등 인적 자본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돌봄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다는 사실이 확인됨.
- 둘째, 돌봄비용의 사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돌봄노동의 상당 부분이 공적인 사회서비스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돌봄노동자의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비공식성이 강한 상태로 시장화되어 있는 가내고용 돌봄일자리는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에 속한 돌봄일자리에 비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음.
- 셋째,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서비스경제로의 변화 등으로 인해 돌봄일자리의 저임금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을까? 분석결과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보여줌. 돌봄일자리의 임금수준은 관찰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돌봄일자리의 임금패널티는 일정 기간 동안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크게 감소하였음. 이 시기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시기와 일치함. 저임금을 개선하려는 의도적인 정책 추진이 긍정적인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줌.

■ 제 7장은 아동돌봄사회화가 계층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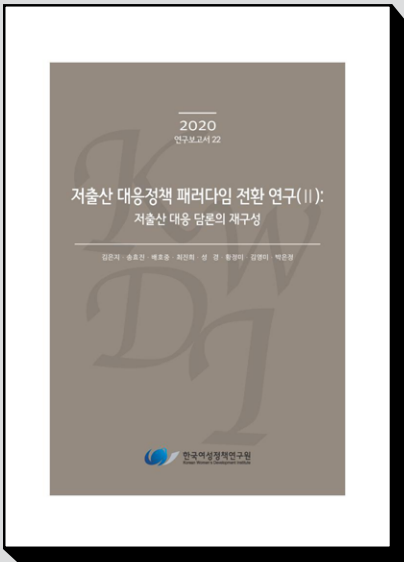
-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급여, 가정양육수당의 세 가지 돌봄지원정책의 소득계층별 함의를 분석함. 보육료 지원은 돌봄의 비용과 노동을 모두 사회화하는 탈가족화 방식임. 육아휴직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돌봄비용만 사회화하는 재가족화 방식임. 이러한 돌봄사회화 방식의 차이는 소득계층별로 다른 함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음.
- 육아휴직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수준과 정확하게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수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불안정하고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확인되었음.
- 가정양육수당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수급 확률이 높아 졌음. 이것은 다소 우려스러운 현상임. 저소득층으로서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현금급여가 소득지원제도로서의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교육 기회가 제약될 뿐 아니라, 모(母)의 자기계발과 구직기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 보육료 지원금은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수급할 가능성이 더 크지만, 모(母)의 취업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엄마가 취업해 있는 가구는 적극적으로 아동을 시설에 보내고 보육료 지원금을 받음. 엄마가 미취업모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저소득층 미취업모 가구는 보육서비스이용에 가장 소극적이라는 이야기기임. 이러한 분석결과는 앞서 가정양육수당 수급 분석결과와 맞아떨어질 뿐 아니라 우려를 더함.

<시사점>

■ 돌봄은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이 겪어야 할 문제로서 여성의 사회권회복과 돌봄의 가치평가가 제고되어야 함.

- 무급 돌봄노동과 유급 돌봄노동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돌봄의 사회화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음. 전(前)자본주의 시대에는 돌봄노동이 가정(혹은 집단적으로) 내에서 비가시적으로 수행되었음.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여성이 임금노동자가 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기 때문임. 복지국가가 들어서서 임금노동자의 탈상품화를 통해 사회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펼쳐졌는데, 임금노동자가 되지 못했던 여성은 여기서 또 한 번 보호범위 밖으로 밀려나게 됨.
- 여성의 사회권 회복을 위해 제안되었던 두 가지 길은 각기 다른 돌봄사회화 정책으로 구현되어 왔는데,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는 보육을 사회서비스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구현됨. 돌봄비용과 돌봄노동을 동시에 사회화하는 정책임. 돌봄의 재가족화는 돌봄비용을 사회화하면서 돌봄노동은 가족에 남겨두는 방식임.
-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제4장까지는 아직 어떤 돌봄사회화 정책도 미치지 않고 비가시화되어 있는 무급 돌봄노동을 다루었음. 가부장제적 규범으로 돌봄노동을 강제하는 경우는 돌봄 제공자에게 치명적으로 해로움.

- 그렇지 않더라도 돌봄이 경제적 불이익이나 시민권적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면 돌봄의 공백이 빠르게 확대되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임. 유급 돌봄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것은 사회적 압력을 통해서 유급노동을 무급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 무급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현실과 유급 돌봄노동이 지속적으로 저임금일자리로 머무는 현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강화될 수밖에 없음. 결국은 저급한 수준의 돌봄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귀결된다. 이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봄을 주는 자가 되고 또 언젠가는 돌봄을 받는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불행한 미래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이런 의미에서 돌봄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다만 어떤 사회화를 추진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남음. 돌봄비용을 사회화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음. 가구의 경제형편에 따라서 어린 시절의 기회와 노후의 존엄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한편으로는 돌봄을 가정과 개인에게 하나의 선택지로 남겨두면서 행복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돌봄을 공공성이 강한 사회서비스로 제공해 나가야 함. 어떤 방식의 사회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것이 특정 성(여성)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점과 저소득층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임.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연구(II)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 김은지

발행월 : 2020년 12월

종류 : 기본 연구보고서

원문출처 : <https://www.kwdi.re.kr>

<배경>

- 빠른 사회변동의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삶의 전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변화에서 저출산과 직결되는 지점은 '친밀성'의 재구조화임
- 2019년 『저출산대응정책패러다임 전환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연속선 상에서, 성별 차이 이외에도 성별 내의 다양성, 가족 및 성평등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계층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 청년들의 생애 전망의 변화에 기반해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재설정함
- 정부에서 발표한 '수정판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 '출산장려'에서 '인권'으로, '국가동원'에서 '개인의 삶의 질'로 전환된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당사자의 감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출산은 사회 위기 담론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 역시 비판점을 제시함.
- 이 연구는 복잡다단한 '저출산'의 메커니즘에서 청년층의 생애전망의 변화에 대한 핵심기제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청년층의 이에 대한 기대 변화를 통해 설명함

■ **청년들의 생애전망 다양성 분석: 양적 자료 분석**

- 청년 세대의 생애 전망의 다양성과 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1차 년도에 수집된 ‘청년층 생애전망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생애전망 다양성에 대한 양적 자료 분석 결과, 출산계획 및 자녀 돌봄, 노동경력 조정계획을 중심으로 청년 생애전망의 유형은 ‘무자녀전망’, ‘출산후 평등_성역할 전망’, ‘출산후 전통_성역할 전망’으로 구분되었음. 특징적인 점은 ‘무자녀 전망’이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임. 또한 일과 개인 생활에 높은 비중을, 파트너십과 자녀라는 과업에는 낮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성평등 및 가족가치관, 여성차별 심각도에 대한 인식과 생애전망 유형 간 관계를 살핀 결과, 여성의 성평등, 가족가치관 유형은 생애전망 유형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음. 평등한 가치관을 지닌 여성들은 이미 자녀를 낳지 않은 쪽으로 생애계획을 전망하는 한편, 남성들의 경우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경우 ‘출산 후 전통_성역할’전망, 평등한 가치관을 가진 경우 ‘무자녀’ 생애전망을 가진 경우가 많았음.

■ **저출산 대응정책과 대안담론**

- 청년활동가 및 청년 당사자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안들을 청취하였으며, 청년 당사자가 말하는 생애전망, 일(취업)-친밀한 관계형성(결혼)-자녀출산과 양육 등에 대한 개인적 희망과 불안, 규범과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생애전망과 정책 담론의 미스매치를 진단하였음
- 특히 여성 참여자들의 생애전망의 핵심은 “독립”과 “일”이었으며, 출산과 양육의 전망은 결혼 및 친밀성 전망보다 상대적으로 막연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 결혼, 출산, 양육을 둘러싼 젠더 격차는 확연히 나타남
-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관계망, 가족과 친구 등 중요한 타자들의 기대에서도 결혼과 출산 규범의 변화가 관찰되었음. 청년들 사이의 “결혼과 자녀 양육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인식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으로 드러남
- 청년활동가 중 일부가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생애와 친밀성에 대해 비혼 지향의, 비혈연 공동체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설계하려는 움직임을 소개하는 등 대안적인 친밀성/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관계에 대한 희망도 소개됨

<시사점>

■ **인구정책과 가족정책을 넘어서 불평등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과 사회환경 전반의 혁신 강조**

- 저출산 정책의 당사자, 특히 청년 여성들의 감수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 담론과 메시지를 모색하는데 기여하며, 당사자 친화적 정책 언어와 프레임 발굴을 통해 설득력 있는 정책 근거자료를 제시함
- 정책제언으로 여성 노동 생애를 중심으로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돌봄을 전담하는 역할을 전제하는 기존 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특히 남녀 모두의 ‘노동생애’가 가능한 노동시장 구조 확립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재조직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사회적 돌봄체계 재구성에 있어 국가주의적 관점이 아닌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전환을 통해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으로 제시되었음. 이 연구는 기존의 인구정책 및 가족 정책적 논의를 넘어서서 사회환경 전반의 변화와 불평등한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